

美임시예산안 상원서 또 부결...‘셋다운’ 한달 넘길 태세

13번째 부결...저소득층 식비 지원·유아교육 프로그램 중단 위기

밴스 부통령 “군인 급여 지급”...법원, 공무원 대량 해고 다시 제동

미국 연방정부의 기능 일부가 중단되는 ‘셋다운’이 한 달을 넘게 될 전망이다.

미 연방 상원은 28일(현지시간) 다수당인 공화당의 단기지출법안(임시예산안·CR)을 표결에 부쳤으나, 찬성 54표에 반대 45표로 통과시키지 못했다. 가결을 위해선 최소 60표가 필요하다.

공화당 의원들이 임시예산안에 모두 찬성하고 민주당 의원들이 모두 반대하는 ‘진영 대결’ 양상도 이어졌다.

셋다운 국면에서 치러진 임시예산안 표결은 이날까지 13차례 연속 부결됐다.

이에 따라 지난 1일 시작된 셋다운은 양측의 대치가 계속되면서 한 달을 넘길 가능성이 커졌다. 역대 최장 기간 셋다운은 트럼프 1기 시절의 35일(2018년 12월22일~2019년 1월25일)이었다. 이번 셋다운이 다음 달 5일 이후까지 이어지면 최장 기록을 갈아치우게 된다.

셋다운의 여파로 저소득층 4천200만명에 대한 식비 지원 프로그램인 영양보충지원프로그램(SNAP)이 다음 달 1일부터 재원 고갈로 중단될 예정이다.

미 농무부는 “자연재해 같은 비상사태에 대비해야 한다”며 50억달러의 SNAP 예비기금 사용 요구를 거절했다. 민주당 측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이 같은 행정부의 조치가 의도적이라며 “잔혹한 행위”라고 비난했다.

다음 달 1일부터 130개 이상의 유아교육 프로그램 ‘헤드 스타트(Head Start)’도 연방 정부의

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 전국적으로 6만5천 개 이상의 헤드 스타트 프로그램에 등록된 아동들이 직접 영향을 받는다.

군인·경찰·소방 등 필수 근무 분야의 공무원들도 셋다운으로 한 달치 급여를 받지 못한 채 일해야 할 처지가 됐다.

오는 31일 급여 지급일을 앞두고 JD 밴스 부통령은 “이번 주말 군인들은 급여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는 밝히지 않았다.

연방 공무원들이 대거 임시 휴직에 들어가면서 최대 공무원 노동조합인 미국공무원연맹(AFGE)은 공화·민주 양당에 조속한 협상을 통한 임시예산안 처리를 촉구했다.

론 존슨(공화·위스콘신) 상원의원은 셋다운 장기화에 따라 무급으로 일하는 핵심 인력과 일시 해고된 인력을 포함한 모든 연방 공무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민주당에 제안했다고 정치 전문매체 더힐이 전했다.

한편, AFGE의 요구를 받아들여 지난 16일 공무원 대량 해고에 대한 ‘임시 금지 명령’을 내렸던 수전 일스턴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이날 이 조치를 소송 기간 동안 유지하도록 ‘예비 금지 명령’을 내렸다.

일스턴 판사는 “대규모 해고는 불법이며 권한을 넘어선 조치”라는 이유를 밝혔지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인사 관련 소송은 지방법원의 권한 밖이라는 입장이다. /연합뉴스



28일(현지시간) 경찰관이 리우데자네이루의 범죄 조직 ‘코만두 베르멜루’가 활동하는 콤플렉스 두 알레마오 빈민가에서 경찰 작전 중 마약 밀매범들이 설치한 거리 배리어케이드의 일부인 배낭을 들어 올리고 있다. /AP=연합뉴스

‘전쟁터 방불’ 브라질 갱단해체...“최소 64명 사망”

리우데자네이루 최대 범죄조직

드론 폭탄 투하·교전 강력 저항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주(州) 당국이 28일(현지시간) 현지 최대 범죄조직을 겨냥한 대규모 갱단원 체포 작전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을 포함해 최소 64명이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주정부는 이날 보도 자료를 내 “오늘 우리는 치안 당국과 함께 최근 15년 만에 최대 규모로 갱단 활동 지역 봉쇄 작전을 진행했다”며 “목표 달성을 위해 헬기 2대, 장갑차 32대, 특수전술 차량 12대, 구급차 등 자원을 동원했다”고 밝혔다.

현장에는 2천500여명의 경찰과 보안요원이 투입됐다.

클라우지우 카스트루 리우데자네이루 주지

사는 “부분 집계 결과 8명의 조직원을 체포했고, 72정의 소총이 압수됐으며, 대량의 마약류도 확보했다”면서 “오늘 작전을 위해 1년 이상 수사하고 60일 동안 계획을 점검했다”고 말했다.

리우데자네이루 경찰은 법원에서 발부한 수백 건의 체포·수색·압수영장을 집행했다고 카스트루 주지사는 부연했다.

이날 작전 수행 현장 곳곳에서는 마치 전쟁 같은 총격전도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 4명을 포함해 최소 64명이 사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현지 언론 T V 글로부와 폴라지상파울루가 보도했다.

또 시민 3명이 총에 맞아 치료받고 있다.

CNN 브라질 생중계 영상을 보면 산비탈에 형성된 주택가 곳곳에서 화염이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오면서 주민들이 긴급히 대피하는 모습이 잡혔다.

여러 발의 총알이 한 건물을 향해 발사되는 장면을 담은 동영상도 현지 소셜미디어에 공유되기도 했다.

범죄 조직원들은 무인 비행장치(드론)를 동원해 경찰관들에게 폭발물을 투하하거나 흡진자동차에 불을 질러 도로를 봉쇄하고 교전을 유도하는 등 강하게 저항했다고 현지 언론들은 전했다.

이날 작전은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악명 높은 갱단 ‘코만두 베르멜루’(CV) 소속 조직원 체포를 위해 진행됐다.

1970년대 리우데자네이루 교도소에서 태동한 코만두 베르멜루는 마약류와 무기 밀매, 살인, 납치, 약탈, 고리대금 요구 등을 일삼으며 빈민가를 중심으로 영향력을 확대했다고 한다.

안전을 위해 이 일대 학교는 긴급 휴업했다. 12개 시내버스 노선 경로도 변경됐다고 당국은 엑스(X·엡 트위터)를 통해 알렸다. /연합뉴스

페이팔 품은 챗GPT...날개 단 ‘AI 쇼핑’

소비자들이 챗GPT에서 페이팔 결제 시스템을 통해 상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온라인 결제 업체 페이팔은 챗GPT 개발사인 오픈AI와 손잡고 자사 디지털 지갑을 챗GPT에 탑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고 미 경제 매체 CNBC가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CNBC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지난 주말 사이에 체결됐으며 내년부터 페이팔 이용자와 판매자는 챗GPT에서 상품을 사고 팔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알렉스 크리스 페이팔 최고경영자(CEO)는 페이팔 이용자는 챗GPT를 통해 상품을 살 수 있고, 판매자는 챗GPT에 상품 목록을 올려 판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협약 소식이 전해지자 페이팔 주가는 약 4% 급등했다고 CNBC는 전했다. 앞서 페이팔은 구

글, 인공지능(AI) 스타트업 퍼플렉시티와의 제휴도 잇따라 발표했다.

크리스 CEO는 “완전히 새로운 쇼핑 패러다임”이라며 AI 기반 에이전티브 커머스(agent commerce)가 미래에 큰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봤다.

오픈AI는 최근 7억명이 넘는 주간 사용자 기반으로 AI 전자상거래 시장으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오픈AI는 지난달 말 챗GPT를 통해 상품을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즉시 결제’ 기능을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즉시 결제 기능은 우선 미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엡시’와 캐나다 기반 전자상거래 플랫폼 ‘쇼피파이’ 상품을 대상으로 실행된다.

또 소비자들이 챗GPT에서 미국 최대 유통업체인 월마트 상품을 바로 구매할 수 있게 월마트와도 파트너십을 맺었다. /연합뉴스

케냐서 경비행기 추락...사파리 관광객 등 11명 사망

28일(현지시간) 이른 오전 케냐 동부 몸바사 인근 팔레 카운티에서 경비행기가 추락해 11명이 사망했다고 현지 당국이 밝혔다.

케냐민간항공청 등에 따르면 이날 이른 오전 디아니 공항에서 이륙해 마사이마라 국립공원

으로 향하던 세스나 경비행기가 약 40km 떨어진 팔레 카운티 구릉지대에 추락했다.

이 사고로 헝가리인 8명, 독일인 2명 등 외국인 관광객 10명과 케냐 조종사 1명 등 탑승자 11명이 모두 숨졌다고 AP통신이 전했다. /연합뉴스

이들이 가려던 마사이마라 국립공원은 사자, 코끼리, 코뿔소, 버팔로(아프리카물소), 표범 등 이른바 ‘빅 5’와 기린, 하마, 치타 등이 서식해 사파리 관광객이 많이 찾는 인기 관광지다.

현지 당국은 경비행기가 이륙 몇 분 만에 추락해 불길에 휩싸였다는 목격자들의 진술을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단법인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증진의원(광주)
Korea Association of Health Promotion

건강검진 어디서 받을까?

검진은 의료기관에서

예약문의 062)363-4040

<http://gwangju.kahp.or.kr>



심의번호
220603-중-139779